

2018년 9월 20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다우지수, 금융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10년물 국채금리 3.08%를 기록하며 4개월내 최고치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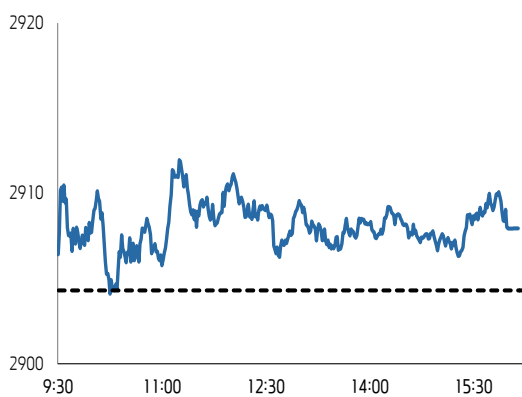
금융주 상승 요인

미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에 힘입어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며 다우지수는 상승 했으나, 미국의 대 중국 관세 발효에 따른 기업 이익 둔화 우려감이 높아지자 개별 종목들이 부진하며 혼조 마감. 특히 유틸리티 및 중소형주가 하락 주도 했으며 일부 기술주도 매물이 출회되며 나스닥과 러셀 2000 지수는 하락(다우 +0.61%, 나스닥 -0.08%, S&P500 +0.13%, 러셀 2000 -0.47%)

전일 미국이 2 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 중국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이후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10년물 국채금리가 7bp 가까이 급등. 오늘도 견고한 주택지표에 힘입어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4개월내 최고치인 3.3bp 상승한 3.08%를 기록. 단기물의 경우 경기 둔화 우려감이 부각되며 상승폭은 제한. 이에 힘입어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자 BOA(+2.62%), 골드만삭스(+2.92%) 등 금융주가 상승. 더불어 JP 모건(+2.90%)이 분기 배당금을 42.9% 인상한 주당 80 센트를 지불한다고 발표한 점도 금융주 상승 요인 중 하나. 배당 수익률로는 2.8%에 달하는데 이번 배당금 인상은 지난 6월 연준이 승인한 2018년 자본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

한편, 미국이 대 중국 무역관세 발효하자 BOA, JP 모건 등 투자은행들이 미국 증시 상승 지속에 대해 경고. 이들은 그 동안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왔으나 이제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특히 관세 발효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미국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주장. JP 모건의 경우는 씨티그룹에 이어 미국 주식에 대한 지분을 줄이고 신흥 시장에 돈을 추가해야 한다고 조언. BOA 도 감세에 따른 실적 개선 및 자사주 매입이 증시 상승 요인이었으나 이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언급하는 등 향후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를 표명. 이를 감안 3Q 실적 발표에서 향후 전망과 관련된 컨퍼런스 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상락률(%)	Close	D-1	지수	상락률(%)	Close	D-1
KOSPI	-0.02	2,308.46	홍콩항셱	27,407.37	+1.19		
KOSDAQ	-0.59	826.91	영국	7,331.12	+0.42		
DOW	+0.61	26,405.76	독일	12,219.02	+0.50		
NASDAQ	-0.08	7,950.04	프랑스	5,393.74	+0.56		
S&P 500	+0.13	2,907.95	스페인	9,486.30	+0.41		
상하이종합	+1.14	2,730.85	그리스	689.59	+0.42		
일본	+1.08	23,672.52	이탈리아	21,280.78	+0.2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주, 에너지주 강세

JP모건(+2.90%)이 분기 배당금을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BOA(+2.62%), 골드만삭스(+2.92%), 웰스파고(+1.32%) 등 금융주도 동반 상승 했다. 더불어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간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엑손모빌(+1.20%), 셰브론(+1.17%), 코노코필립스(+0.65%) 등 에너지주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상승 했다. 한편, 보잉(+0.45%) 등 항공주와 캐터필라(+2.48%) 등 기계업종, GM(+1.79%), 포드(+2.09%) 등 자동차주는 미, 중 무역분쟁 관련 협상을 기다리며 상승 했다.

반면, 아마존(-0.75%)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다만 장 중 낙폭이 축소되었는데 무인 소매점을 3천개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힘입어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식에 월마트(-0.20%), 코스트코(-0.21%), 타겟(-0.59%) 등 소매 유통업체들은 하락 했다. 한편, 넥스테라 에너지(-2.46%),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2.00%) 등 유틸리티 업종과 리얼티인컴(-1.50%), 사이몬 프로퍼티 그룹(-0.89%) 등 리츠금융 회사들은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부진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08%	대형 가치주 ETF	+0.35%
에너지섹터 ETF	+1.31%	중형 가치주 ETF	-0.11%
소매업체 ETF	-0.02%	소형 가치주 ETF	-0.10%
금융섹터 ETF	+1.70%	배당주 ETF	-0.68%
기술섹터 ETF	-0.26%	변동성 ETF	-3.42%
소셜 미디어업체 ETF	+0.82%	대형 성장주 ETF	-0.03%
인터넷업체 ETF	-0.39%	중형 성장주 ETF	-0.51%
리츠업체 ETF	-0.95%	소형 성장주 ETF	-0.62%
주택건설업체 ETF	-0.05%	신흥국 고배당 ETF	+0.97%
바이오섹터 ETF	+0.13%	신흥국 저변동성 ETF	+0.88%
헬스케어 ETF	-0.14%	하이일드 ETF	-0.19%
곡물 ETF	+0.47%	물가연동채 ETF	-0.11%
반도체 ETF	+0.23%	Long/short ETF	-1.6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52.68	+0.38%	+1.82%	+2.26%
소재	377.06	+1.12%	+1.75%	+1.86%
산업재	667.72	-0.04%	+1.91%	+2.94%
경기소비재	928.87	+0.03%	-0.20%	+2.27%
필수소비재	559.10	-0.15%	-0.82%	-0.09%
헬스케어	1,079.83	-0.11%	+0.89%	+2.25%
금융	475.47	+1.76%	+2.34%	+1.15%
IT	1,300.39	-0.10%	+0.28%	+1.74%
통신	156.61	-1.35%	-1.35%	-1.48%
유틸리티	267.83	-2.12%	-1.81%	-1.62%
부동산	204.13	-0.91%	-1.45%	-1.4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 장세 이어갈 듯

MSCI 한국 지수는 0.06% 상승에 그친 반면 MSCI 신흥지수는 1.38%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340 계약)에 힘입어 0.45pt 상승한 297.5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8.0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8 월 14 일 중국 실물경제지표가 둔화되자 8 월 16 일 KOSPI 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 높아지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 했다. 이후 KOSPI 는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9 일 연속 상승 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 우려 확산을 막기 위해 유동성 공급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후에도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격화되자 피해 당사자인 수출기업들을 위해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 인상을 단행 했고,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대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 개인소득세 인하 등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도 발표 하는 등 전방위적인 부양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경기 부양정책은 둔화된 중국 실물경제지표 개선 기대감을 높인다. 이는 향후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가운데 JP 모건을 비롯한 일부 투자은행들이 신흥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록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이 이슈가 완화된다면 하락폭이 컸던 신흥국의 상승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 관련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전 그 동안 하락폭이 컸던 종목군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감안 연휴 전 한국 증시는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낙폭이 컸던 일부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 이외에는 변화가 제한 된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착공건수 증가

미국 8 월 주택 착공 건수는 지난달(117.4 만건) 보다 개선된 128.2 만 건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시장 예상치(124 만건) 보다 개선된 결과다. 한편, 향후 흐름을 알 수 있는 허가건수는 전월(130.3 만건) 보다 감소한 122.9 만 건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시장 예상치(131.5 만건) 보다 낮은 결과다. 이를 감안 미국의 주택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향후 둔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상승

국제유가는 EIA(에너지 정보청)가 주간 원유재고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상승 했다. EIA 는 지난 주 원유재고가 206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시장 전망치와 부합된 결과였다. 한편, 가솔린 재고는 시장 예상치인 30 만 배럴 감소 보다 큰 172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 했다. 이 가솔린 재고 감소가 수요 증가 기대감을 높였다는 점에서 국제유가 상승 요인중 하나였다. 한편, 이란 OPEC 이사는 “다른 회원국들이 이란 원유 대체에 어려움을 겪을 것” 이라고 주장 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수출감소가 나오고 있으나, OPEC 회원국들의 증산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OPEC 의 산유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해석도 된다.

달러화는 주택지표 개선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로 출발 했으나 변화는 제한된 가운데 신흥국 환율이 강세를 보이자 약세로 전환 했다. 파운드화는 EU 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 관련 제안을 했으나, 영국 총리의 반대로 거부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달러 대비 소폭 약세로 전환했다. 신흥국 환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유입되며 달러 대비 1% 내외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주택착공건수 증가에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전일에 이어 미국의 대 중국 관세 발효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특히 장중 한 때 10 년물은 4 개월내 최고치인 3.08%를 2 년물은 올해 들어 최고치인 2.81%를 기록했다. 다만, 장 후반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며 단기물은 하락 전환 했다.

금은 미국의 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발효로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보합권 혼조 양상을 보였다. 중국 상품 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98%, 철근도 0.12%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71.12	+1.82	+1.07	Dollar Index	94.548	-0.10	-0.26
브렌트유	79.40	+0.47	-0.43	EUR/USD	1.1675	+0.07	+0.42
금	1,208.30	+0.45	-0.21	USD/JPY	112.27	-0.08	+0.91
은	14.280	+0.67	-0.09	GBP/USD	1.3147	-0.01	+0.78
알루미늄	2,026.00	-0.44	-1.84	USD/CHF	0.9675	+0.31	-0.35
전기동	6,121.00	+0.58	+2.07	AUD/USD	0.7267	+0.66	+1.37
아연	2,434.00	+3.62	+2.68	USD/CAD	1.2917	-0.44	-0.62
옥수수	345.75	+0.73	-1.91	USD/BRL	4.1283	-0.81	-0.77
밀	522.50	+2.35	+3.11	USD/CNH	6.853	-0.12	+0.25
대두	830.00	+1.97	-1.19	USD/KRW	1121.10	-0.19	-0.66
커피	96.70	+0.89	-5.29	USD/KRW NDF1M	1118.00	-0.31	-0.13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3.074	+1.87	+11.12	스페인	1.524	+2.10	+6.40
한국	2.375	+4.00	+12.50	포르투갈	1.885	+3.60	+2.90
일본	0.124	+0.70	+1.10	그리스	4.079	+2.10	+1.60
독일	0.487	+0.70	+7.60	이탈리아	2.849	+6.20	-9.80